



〈5〉 전남 5개 시 이끌 수장은

목포·여수·순천·광양·나주는 전남을 대표하는 시 단위 도시들로, 6·3 지방선거 결과는 각 도시의 향후 4년을 좌우하는 중요한 선택이 된다. 항만과 해양산업의 중심지인 목포와 여수, 산업과 물류 거점으로 성장해 온 광양, 주거·정주 기능이 확대되며 인구 유입이 이어지는 순천, 공공기관 이전과 에너지 산업을 기반으로 도시 틀을 갖춰온 나주는 서로 다른 여건 속에서 각자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전남 시 단위 선거를 중심으로 후보들의 경쟁 구도 등을 짚어본다.

민주당 vs 무소속 경쟁 속 다자구도 '주목'

목포시장

강성휘·전경선 등 공천 경쟁
박홍률 출격·정의당 후보 채비

현직 부재 상태인 전남 목포시장 선거 판이 본격적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선거 판은 특정 인물 중심이 아닌, 다수 후보가 각자의 이력과 강점을 앞세우는 다자 경쟁 구도로 빠르게 성평되고 있다.

현재 출마가 거론되는 인물은 박홍률 전 목포시장,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 전 경선 전남도의원, 이호균 목포과학대학 교총장, 장복성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부위원장,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등이다. 여기에 윤성웅 국민의힘 목포당 협위원장, 여인우 정의당 목포지역위원장 등이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며, 선거 구도는 복수 정당이 참여하는 다층적 경쟁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행정 경험을 앞세운 후보, 정책 전문성을 강조하는 후보, 지역 밀착형 이미지를 내세우는 후보들이 각각 다른 지점을 광고하며 경쟁 구도를 형성하는 모습이다.

무소속의 박홍률 전 시장은 민선 6기와 8기 시장을 이끈 경험을 토대로 교육

발전특구와 기회발전 특구 지정 성과를 주요 이력으로 내세운다.

배우자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중도 퇴진했지만, 본인에게는 피선거권 제한이 없어 출마에 법적 제약은 없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고민득표를 기록한 경향 역시 다시 거론된다.

민주당 후보군도 각자의 경력과 의제를 앞세워 경선 경쟁에 대비하고 있다. 강성휘 전

도의원은 3선 시의원과 재선 도의원, 국회의원 비서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거치며 정책·행정 경험을 쌓아왔다. 전남도사회서비스원장직을 내려놓고 선거 준비에 나선 점도 도전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전경선 도의원은 목포 토박이로 시·도의회를 거치며 생활 현안 중심의 의정 활동을 이어온 점을 강조한다.

이호균 총장은 전남도의회 부의장·의장을 역임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무안 반도 통합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주요 과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장복성 부위원장은 6선 시의원 경력을 토대로 목포·신안 통합과 단임 개혁 구상을 내놓고 있다. 배종호 회장은 방송 활동과 지역 행보를 통해 꾸준히 이름이 오르내리며 잠재적 변수로 거론된다.

이번 목포시장 선거는 특정 진영 간 단순 대결보다는 정당별 후보 구성과 민주당 내부 경선 결과·소수 정당 후보의 참여 여부가 복합적으로 맞물리는 구조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이현규 기자 gnnews1@

목포=성명준 기자 tjdaudwns@

목포·여수·순천·광양·나주는 전남을 대표하는 시 단위 도시들로, 6·3 지방선거 결과는 각 도시의 향후 4년을 좌우하는 중요한 선택이 된다. 항만과 해양산업의 중심지인 목포와 여수, 산업과 물류 거점으로 성장해 온 광양, 주거·정주 기능이 확대되며 인구 유입이 이어지는 순천, 공공기관 이전과 에너지 산업을 기반으로 도시 틀을 갖춰온 나주는 서로 다른 여건 속에서 각자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전남 시 단위 선거를 중심으로 후보들의 경쟁 구도 등을 짚어본다.

정기명 재선...명창환 등 도전 여수산단·관광 해법 최종 변수

여수는 지난 1995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단 한 차례도 연임 시장을 배출하지 못한 특수한 정치 지형을 안고 있다. 8번의 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후보가 5차례, 무소속 후보가 3차례 당선되면서 '연임 불가'와 '무소속 돌풍'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이 이어져 왔다. 이번 선거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되풀이될지, 아니면 현직 프리미엄이 활동하며 새로운 정을 열지 주목된다.

무엇보다 석유·화학산단 침체와 관광 경쟁력 약화라는 구조적 위기 앞에서 각 후보가 제시할 해법이 최종 선택의잣대가 될 전망이다. 지역 현안을 어떻게 풀어낼지가 경선과 본선의 최대 변수다.

정기명 현 시장은 재선 도전에 유력한 가운데 김순빈 전 여수시의회 부의장, 김영규 전 여수시의회 의장, 김유화 전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김창주 전 여수경영인협회 회장, 명창환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 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 서영학 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이광일 전

남도의회 부의장, 이우주 전 국회의원, 주종섭 전남도의원, 한문선 여수상의 회장 등이 민주당 공천장을 노리고 있다.

권오봉 전 여수시장도 출마가 점쳐졌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1심에 이어 최근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희택 국민의힘 여수 당협위원장,

이상우 조국혁신당 여수시 지역위원장도 출마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선거는 현직 프리미엄과 '연임 불

가' 전통의 충돌, 민주당 경선 과열과 사전 단일화 가능성, 명창환 전 부지사 등

신인급 변수, 2026 세계섬박람회 준비 성과가 맞물리며 다층 구도를 형성할 전망

이다. 민선 자체제 이후 단 한 차례도 시장 연임이 없었던 여수에서 이번에도 '정

크스'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여수시민들의 선택은 산단과 관광이라

는 지역 현안을 해결할 실질적 해법을 누

가 내놓느냐가 최종 당락을 가를 핵심 열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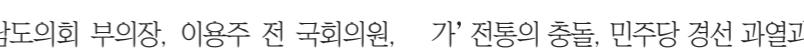
이현규 기자 gnnews1@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

후보자 난립...연임 불가 징크스 깨지나

여수시장

정기명 재선...명창환 등 도전 여수산단·관광 해법 최종 변수



여수는 지난 1995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단 한 차례도 연임 시장을 배출하지 못한 특수한 정치 지형을 안고 있다. 8번의 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후보가 5차례, 무소속 후보가 3차례 당선되면서 '연임 불가'와 '무소속 돌풍'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이 이어져 왔다. 이번 선거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되풀이될지, 아니면 현직 프리미엄이 활동하며 새로운 정을 열지 주목된다.

무엇보다 석유·화학산단 침체와 관광 경쟁력 약화라는 구조적 위기 앞에서 각 후보가 제시할 해법이 최종 선택의

잣대가 될 전망이다. 지역 현안을 어떻게 풀어낼지가 경선과 본선의 최대 변수다.

정기명 현 시장은 재선 도전에 유력한 가운데 김순빈 전 여수시의회 부의장, 김영규 전 여수시의회 의장, 김유화 전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김창주 전 여수경영인협회 회장, 명창환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 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 서영학 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이광일 전

남도의회 부의장, 이우주 전 국회의원, 주종섭 전남도의원, 한문선 여수상의 회

장 등이 민주당 공천장을 노리고 있다.

권오봉 전 여수시장도 출마가 점쳐졌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1심에 이어 최근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

예를 선고받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희택 국민의힘 여수 당협위원장,

이상우 조국혁신당 여수시 지역위원장도 출마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선거는 현직 프리미엄과 '연임 불

가' 전통의 충돌, 민주당 경선 과열과 사

전 단일화 가능성, 명창환 전 부지사 등

신인급 변수, 2026 세계섬박람회 준비 성

과가 맞물리며 다층 구도를 형성할 전망

이다. 민선 자체제 이후 단 한 차례도 시

장 연임이 없었던 여수에서 이번에도 '정

크스'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여수시민들의 선택은 산단과 관광이라

는 지역 현안을 해결할 실질적 해법을 누

가 내놓느냐가 최종 당락을 가를 핵심 열쇠다.

이현규 기자 gnnews1@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

'무소속 현직' 맞서 민주 후보군 도전장

순천시장

노관규, 정검다리 4선 관심
민주, 치열한 경선전 예고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무소속 단체장이 시장을 이끌고 있는 순천은 6·3 지방선거에서 가장 상징적인 경쟁지로 꼽힌다. 민주당 조직력이 강한 지역에서 무소속 시장이 재선을 넘어 4선에 도전하는 구도 자체가 이례적인 데다, 지난 민선 8기 동안 누적된 현안과 갈등이 유권자의 판단대에 오르기 때문이다.

현역 노관규 순천시장은 민선 3·4기와 8기 시장과 세 차례 시장을 맡았다. 순천만세계정원박람회를 기획한 인물로, 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르며 정원 도시 순천이라는 브랜드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형 사업을 맡아붙이는 추진력과 행정 경험은 강점이지만, 무소속이라는 정치적 한계도 분명하다.

노 시장은 이번 선거에서 정검다리 4선 고지에 오른다는 구상이다.

맞상대는 민주당 경선에서 가려진다. 민주당은 순천에서 다자 경선이 불가피

한 상황이다. 지난 지방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오하근 전 전남도의원은 재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기업 경영 경험과 의정 활동을 앞세워 경제와 실물 중심

현장'을 강조한다.

손훈모 변호사는 임자인·노동 관련 소송 등 생활 현장에서 쌓은 인지도를 기반으로 서민 친화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서동우 전 전남도의원은 다선 도의원 경력과 조직력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허석 전 순천시장 역시 민선 7기 시장 경력을 바탕으로 재기를 노리고 있다. 여기에 한숙경 전남도의원이 최근 출판기념회를 열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서면서 여성 후보 카드도 부각되고 있다.

진보 진영의 음침임도 변수다. 이성수 진보당 전남도당 위원장은 총선과 지방 선거 출마에 나서면서 여성 후보 카드도 부각되고 있다.

민주당은 순천에서 다자 경선이 불가피

한 상황이다. 지난 지방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오하근 전

전남도의원은 재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성수 진보당 위원장은 총선과 지방

선거 출마에 나서면서 여성

후보 카드도 부각되고 있다.

민주당은 순천에서 다자 경선이 불가피

한 상황이다. 지난 지방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오하근 전

전남도의원은 재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성수 진보당 위원장은 총선과 지방

선거 출마에 나서면서 여성

후보 카드도 부각되고 있다.

민주당은 순천에서 다자 경선이 불가피

한 상황이다. 지난 지방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오하근 전

전남도의원은 재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성수 진보당 위원장은 총선과 지방

선거 출마에 나서면서 여성

후보 카드도 부각되고 있다.

민주당은 순천에서 다자 경선이 불가피

한 상황이다. 지난 지방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오하근 전

전남도의원은 재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성수 진보당 위원장은 총선과 지방

선거 출마에 나서면서 여성

후보 카드도 부각되고 있다.

민주당은 순천에서 다자 경선이 불가피

한 상황이다. 지난 지방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오하근 전

전남도의원은 재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성수 진보당 위원장은 총선